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 编
서울(SEOUL)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 监修

韩国语4

编著者

李先汉 金京善 王 丹

金正祐 (韩国)

民族出版社

[주] 한국교육미디어 후원

[株] 韩国教育媒体 资助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 编
서울(SEOUL)대학교국국어교육연구소 監修

韩国语4

编著者

李先汉 金京善 王 丹

金正祐(韩国)

江苏工业学院图书馆
藏书章

民族出版社

责任编辑：崔红梅

责任校对：孙 瑛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 4 / 李先汉等编著. —北京：民族出版社，2004.1

ISBN 7-105-05981-8

I. 韩… II. 李…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3)第 123688 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 14 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4 年 1 月第 1 版 2004 年 1 月北京第 1 次印刷

开本：787 毫米×1092 毫米 1/16 印张：16.75 字数：420 千字

印数：0 001-5 000 册 定价：30.00 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64228211；发行部电话：64211734)

前 言

在中国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与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诸位同仁的共同努力下,《韩国语》终于得以付梓。

本书是为大专院校韩国语专业的学生编写的,也可供各类韩国语学习班及个人自学选用。

全书共分四册,每册学习一学期,供一、二年级使用。

本书从韩国语字母发音讲起。根据韩国语发音的规律与特点,结合初学者学习韩国语时的难点,做了较为详细的介绍,并将其与汉语发音做了对比,以使初学者准确地掌握韩国语的发音要领。

每课均包括课文、生词、语法与惯用型及练习等内容。

课文分为情景对话和短文两部分,兼顾了口语和书面语两种形式,不仅可以提高初学者的口语水平,还能增强书面表达能力。另外,编写课文时,没有过多地拘泥于语法的难易次序,尽量做到课文内容自然、生动,以使初学者能够学到地道的韩国语。

生词部分收录了课文中出现的生词和语法、练习中出现的生词,并逐一注明了词性。释义只限于该课出现的或一般常用词义。第二册开始以词汇活用的形式,对部分重要的单词做了详细的解释,并加了较丰富的例句。

语法与惯用型部分完全以韩国现行语法规范为标准,因此,在语法体系及语法术语的使用上与以往的教材有较大的不同。语法与惯用型解释力求准确、详尽,并尽可能地与汉语做了比较,有利于初学者正确理解语法意义。

此外,本书还安排了形式多样的练习,其内容具有补充和启发性质,可在课堂授课时间内完成,也可选做课外作业。

本书还在最后的附录部分安排了课文译文、语法索引及词汇索引等内容,便于对照与查找。

本书由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组织编写,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

研究所监修。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选派金正祐先生参加教材的编写工作。在编写本书的过程中，得到了〔株〕韩国教育媒体的鼎力资助。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的金光海教授、尹汝卓教授为促成此次合作起了举足轻重的作用，并为本书的编写和出版做了不懈的努力。韩国国立汉城大学校的沈在箕教授、朴甲洙教授、李相翊教授等也在百忙之中积极关心、支持本书的编写工作。韩国国立国语研究院和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的部分研究生为本书的校阅付出了辛勤的劳动。在此，谨向〔株〕韩国教育媒体的崔大焕会长及以上诸位韩国学者、研究生致以衷心的感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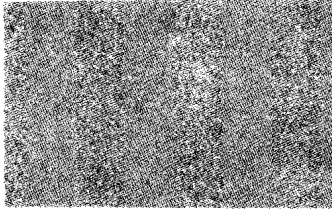
此外，洛阳解放军外国语学院张光军教授、对外经济贸易大学金秉运教授、北京外国语学院的苗春梅教授为本书的编写提出了许多宝贵的意见。民族出版社朝鲜文编辑室的编校人员为本书的编辑出版付出了艰辛的劳动。在此，谨向他们致以由衷的谢意。

由于我们水平有限，加之时间仓促，书中的缺点与不足在所难免，恳请诸位读者予以批评指正。

中国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 所长 李先汉

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 所长 金大幸

2001年6月



目 录

第1课 이야기의 세계	5
第2课 유민의 한국 여행	17
第3课 예절과 체면	30
第4课 결혼 이야기	43
第5课 함께 사는 세상	56
第6课 배움의 길	68
第7课 한국인의 시간	82
第8课 나의 집, 우리 집	95
第9课 두레와 품앗이	108
第10课 뚝뚝한 휴대전화	120
第11课 한글에 대하여	133
第12课 방망이 짚던 노인	145
第13课 서시	161
第14课 심청가	174
第15课 사랑 손님과 어머니	190

附 录

课文译文 206

语法索引 231

词汇索引 235

第 1 课

이야기의 세계

课文

(1) 유민 씨와 최지애 씨는 방학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애: 반가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유민: 그럼, 잘 지냈지. 너도 별일 없었지?

지애: 응, 한국에 가서 이것저것 자료를 좀 모으느라고 많이 바쁘긴 했지만, 뭐 크게 특별한 일은 없었어.

유민: 어떤 자료들을 모았는데?

지애: 한국의 옛날이야기들을 좀 알아봤어. 지난 학기에 어떤 중국 학생이 나한테 한국의 옛날이야기들을 알려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 예전에는 제법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니깐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방학에 열심히 찾아봤지.

유민: 그랬구나. 많이 찾았어?

지애: 응, 며칠 동안 도서관에 처박혀서 많은 책을 읽고 복사도 했지. 그에 관한 연구서적들도 사서 봤어. 이번에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그 자료만 한 아름이더라고.

유민: 와, 그래? 고생 많았겠다. 나한테도 좀 빌려 줄 거지?

지애: 글썄, 맨입으로 될까?

유민: 하하, 알았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2) 왕동 씨와 김준호 씨는 옛날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왕동: 준호 씨, 중국의 설화집을 읽고 계시네요?

준호: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군요. 중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어서 그런지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무척 많군요.

왕동: 한국의 옛이야기들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들도 조

금 있었던 것 같군요.

준호: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특히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은 어느 민족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동: 그렇겠지요. 중국 옛이야기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준호: 아무래도 반고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한 것이지요.

왕동: 그렇지요. 반고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대답인 셈이지요. 아, 마침 잘됐군요. 제가 예전에 반고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겨 본 게 있는데 준호 씨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3)

아득히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우주의 모습은 좌우(左右)·상하(上下)·동서남북(東西南北) 그 어느 것 하나도 분별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혼돈 상태였으며, 우주는 마치 거대한 계란 모양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어두운 우주 속에서 위대한 한 영웅이 잉태되었으니, 그가 바로 천지를 개벽한 ‘반고(盤古)’이다.

잉태된 후 무려 1만 8천 년 동안 계속 잠만 잔 반고는 어느 날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것은 막막한 어두움과 견딜 수 없는 뜨거움뿐, 그야말로 움작달작할 수 없었다. 일어서고 싶었으나 딱딱한 알의 껍질에 싸여 있어 그의 몸은 물론이고, 팔다리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펼 수 없었다.

반고는 화가 났고 어디선가 날이 시퍼런 도끼를 가져와서 있는 힘을 다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알 껍질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중 가볍고 맑은 것은 서서히 위로 올라가더니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무겁고 탁한 것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

하늘과 땅을 나눈 반고는 뭇 듯이 기뻐하였으나, 천지가 다시 합쳐지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자신의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었다. 반고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갔고 매일 매일 키가 자람에 따라 하늘과 땅 사이도 점점 벌어졌다. 이렇게 어느덧 1만 8천 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이때 반고는 키가 9만 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어 있었다.

몇 만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하늘도 평화를 찾고 땅도 안정되어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천지를 개벽한 영웅은 이미 지쳤고 영원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그러자 그의 왼쪽 눈은 태양이 되었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내어 쉰 숨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다. 또한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이 되었고 빠는

산이 되었다. 그리고 피는 강물로, 근육은 대지로, 피부는 초목으로 변했으며, 흐르는 땀마저도 비와 이슬이 되었다. 신화에 있어 제일의 영웅은 단연 반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课文生词

막상 真的, 实际上, 事实上,
一……就

처박다 表示使某人一直在某地

처박히다 처박다的被动形,
表示某人一直在某地

맨입 空口, 空嘴, 白嘴, 不
付出任何代价

설화 神话, 传说, 传奇,
故事

설화집 故事集

옛이야기 神话传说, 故事

권선징악 惩恶扬善

반고 盘古

의문 疑问, 问题

셈 算是, 等于

옮기다 翻译, 变为

검토 研讨, 查对, 审查

검토하다 研讨, 查对, 审查

아득하다 悠久, 悠远, 久远,
很久

아득히 悠久, 悠远, 久远,
很久

우주 宇宙

좌우 左右

상하 上下

동서남북 东西南北

칠흑 漆黑

어둡다 黑暗, 灰暗

혼돈 混沌

계란 鸡蛋

임태 怀孕, 孕育

임태하다 怀孕, 孕育

임태되다 怀孕, 孕育

천지 天地

개벽 开辟

개벽하다 开辟

무려 足有, 竟有

마침내 终于, 最后

뜨다 睁(眼)

막막하다 渺茫, 孤寂, 沉闷

어두움 黑暗

뜨거움 灼热, 炎热

움짱달싹 (多与表示否定的形
式连用)表示一动一动貌

움짱달싹하다 动弹

일어서다 站起来, 起身

딱딱하다 坚硬, 生硬

껍질 壳

싸이다 싸다的被动形, 包

팔다리 胳膊腿, 四肢

펴다 伸, 伸展

어디선가 어디에서인가的缩略形

날 刀

시퍼렇다 锋利, 锐利

도끼 斧头, 斧子

있는 힘을 다하다 用尽全力,
竭尽全力

휘두르다 挥动, 抡, 甩

굉음 轰鸣, 轰响

깨지다 破裂, 破碎

탁하다 浊, 浑浊

합쳐지다 합치다的被动形,
合上

받치다 托, 支, 捧

밟다 踩, 踏

하루가 다르게 表示迅速(变化)

흘리가다 流逝, 逝去

어마어마하다 高大无比, 庞
大, 力大无比

거인 巨人

빠져 들다 进入, 陷入, 沉湎

태양 太阳

머리카락 头发

수염 胡须

뼈 骨头, 骨骼

근육 肌肉

대지 大地

초목 草木

이슬 露水

▶ 词汇活用 ◀

1. 별일(名词)

(1) 表示“别的事”、“特别的事”等意思。

- 例
- 별일 없으면 나를 좀 도와줘.
你如果没有别的事的话，帮我一下。
 -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别人认为不是什么特别的事，但我并不这样想。

(2) 表示“奇怪的事”、“少有的事”等意思。

- 例
-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본다.
人生在世，真是什么事都能遇到。
 - 참, 별일이군.
真是怪事。

2. 막상(副词)

表示“某件事真的变成现实”的意思，相当于汉语的“真的”、“实际上”、“一……就”等。

- 例
- 우리는 자주 싸웠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눈물이 났다.
我们虽然经常吵架，但真的要分手，又不禁落泪。
 - 화가 나서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나와 보니 갈 곳이 없다.
发起火来想离开家，但真出来了又没有地方可去。
 -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 보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看起来似乎很难，但实际做起来却并不怎么费劲。
 - 무섭다고 소문이 난 선생님이지만 막상 가까이 대해 보면 꽤 자상하신 분이다.
虽然是一位因严厉而闻名的老师，但实际接触就会发现他是个相当热心的人。

3. 치박다(他动词)/치박히다(自动词)

(1) 表示“用力钉”的意思。

- 例
- 말뚝을 땅에 치박았다.
将桩子使劲地钉在地上。
 - 졸음운전을 하다가 벽에 차를 치박았다.
开车打瞌睡，结果撞在墙上了。

(2) 表示“随便地塞起来”、“随便堆放”的意思。

- 例
- 장롱 속에 옷을 치박아 두었다.
将衣服随便地塞进衣柜里。

把衣服胡乱塞在衣柜里了。

- 물건을 아무 데나 치박아 두면 찾을 수가 없다.
随便堆放东西的话，到时就找不到了。

(3) 表示“只呆在一定的地方，不去他处”的意思。

- **例** • 휴일에 집에만 치박혀 있었다.
休假时就呆在家里了。
- 늙었다고 촌구석에만 치박아 두려고 하지 마라.
不要因为年纪大就呆在乡下不动窝。

4. 맨입(名词)

(1) 表示“空口”、“白嘴儿”等意思。

- **例** • 맨입에 김치만 먹었더니 속이 아프다.
空口吃了泡菜，现在肚子疼。
- 친구 집에 와서 맨입으로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 밥이라도 먹고 가.
到了朋友家里哪有就这么走的道理啊？吃了饭再走。

(2) 表示“不付出任何代价”的意思。

- **例** • 요즘에는 맨입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最近几乎没有不付出任何代价就能办成的事。
- 설마 이런 부탁을 맨입으로 하려는 건 아니겠지?
你该不会让我白帮你这个忙吧？

5. 시퍼렇다(形容词)

(1) 表示颜色非常蓝的意思，相当于汉语的“深蓝”、“碧蓝”、“碧绿”、“发青”等。

- **例** •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碧绿的江水在流淌。
- 어제 축구하다 친구와 부딪혔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昨天踢足球时和别人撞上了，今天早上起来一看眼角青了一块。

(2) 表示“因为冷或恐惧而脸色或嘴唇等发紫”的意思，相当于汉语的“发紫”、“铁青”等。

- **例** • 귀신을 봤다고 외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那个喊见到了鬼的人脸色铁青。
- 그녀는 추위에 떨었는지 입술이 시퍼렇게 되어 있었다.
她可能是因为冷而发抖，嘴唇发紫。

(3) 表示“凶狠”、“气势汹汹”等意思，相当于汉语的“恶狠狠”等。

- 例
- 그의 눈에서는 독기가 시퍼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他的目光恶狠狠的。
 - 서슬이 시퍼렇게 권세를 부리던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
那么飞扬跋扈、大耍权势的人最终也会死掉。

(4) 表示刀刃非常锋利，相当于汉语的“锋利”、“锐利”等。

- 例
- 시퍼런 칼날이 무서워서 항복하고 말았다.
因惧怕锋利的刀刃而投降了。
 - 그 영화의 주인공은 결국 시퍼런 비수가 등에 꽂힌 채 숨을 거두었다.
那个电影中的主人公最终被锋利的匕首刺中后背一命呜呼了。

语法与惯用型

1. 惯用型 -다 싶다/-ㄴ 다 싶다/-는다 싶다/-겠다 싶다/-나 싶다/-가 싶다

用于用言后，表示话者的想法或感觉，相当于汉语的“认为”、“以为”、“觉得”等。

- 例
-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방학에 열심히 찾아봤지.
我想这样可不行，就在假期里认真地查了一番。
 - 금년에는 경기가 좀 풀린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觉得今年稍微景气一些了，就积极地投资了。
 - 철수에게서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 싶어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외국으로 이민을 갔더군요.
觉得好长时间没和我联系了，后来一打听才知道他已经移民国外了。
 - 이제야 편안히 살게 됐다 싶었는데 불행히도 암에 걸렸다.
以为现在终于可以舒舒服服地过日子了，可不幸得了癌症。
 -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는가 싶었지만 결국 불합격이었다.
本以为我也有了好机会，可是最终却没有合格。

2. 惯用型 -거라고(것이라고) 생각하다(믿다, 여기다, 짐작하다)

表示间接引述心里的某种想法。相当于汉语的“想”、“认为”、“猜测”等。

- 例
- 특히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은 어느 민족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我认为不论是哪个民族, 肯定都有一些惩恶扬善的神话传说。
 - 나는 그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해낼 거라고 굳게 믿었다.
我确信不论事情有多困难, 他都能干好。
 -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가 올 것이라고 여겼다.
人们都认为他肯定会来。
 - 나는 그가 화를 낼 것이라고 짐작했다.
我猜他会发火的。

3. 惯用型 -ㄴ 셈이다/-는 셈이다/-은 셈이다

表示某种实际情况, 相当于汉语的“算是”、“等于”等。

- 例
- 반고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대답인 셈이지요.
盘古的故事就算是中国人对这个问题的回答吧。
 - 이젠 이 문제가 해결된 셈이지?
现在这个问题就算是解决了吧?
 - 그러면 우리는 헛수고를 한 셈이군.
那我们等于白辛苦了。
 -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다 지는 셈이 아닌가?
要是那样的话, 我们不是得负全责吗?

4. 惯用型 -지나 않을까 하다(싶다)

表示疑问、担心等心理活动, 相当于汉语的“惟恐”、“担心”等。

- 例
- 하늘과 땅을 나눈 반고는 떨 듯이 기뻐하였으나, 천지가 다시 합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는 하늘을 받치고 자신의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었다.
将天地分开的盘古高兴极了, 但又惟恐天地再一次合拢, 于是就用头顶着天, 用脚踏着地站立着。
 - 혹시 길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안절부절못했다.
因为担心在路上出事故而坐立不安。
 - 그는 혹시 자기가 잘못 듣지나 않았을까 싶어 또 한 번 물었다.
他担心是不是自己听错了, 又问了一遍。

练习

1. 根据课文内容回答下列问题。

- (1) 지애 씨는 방학에 무엇을 했습니까?
- (2)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 (3) 중국의 옛이야기와 한국 옛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 (4) 반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 (5) 반고는 어떻게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습니까?
- (6) 반고의 신체 부위들은 각각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2. 根据所给的内容完成下列句子。

- (1)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그 친구가 집에 없겠다 싶었는데
- (2) 일이 잘 되어 간다 싶더니
- (3) 이제는 사이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 (4) 어머니 건강이 점점 회복되는가 싶어서
- (5) 그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다 싶어서
- (6) 늘 혼자만 억울한가 싶지만

3. 仿照例句，用所给的词造句。

보기 부모님, 나무라다, 사정, 이렇다.

→ 사정이 이러니 부모님께서도 나무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1) 오르다, 상점, 물가, 이상, 더, 많다.

→

- (2) 풀리다, 날씨, 내일, 더워지다.

→

- (3) 건강, 요즘, 등산, 챙기다, 사람들, 많다.

→

(4) 한국, 타다, 관광객, 방문하다, 늘어나다, 비행기, 어렵다.

→

4. 仿照例句完成下列句子。

보기 우리가 사람이 더 적은데 비겼으니 실지는 이긴 셈이다.

(1) 언니가 어린 동생들을 다 길렀으니

(2)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만 돌아가라니

(3) 많은 고생을 했지만 밀지지는 않았으니

(4) 허가 닳도록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 냈으니

5. 根据所给的内容完成下列句子。

(1)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나 않을까 싶어서

(2)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 무슨 일이라도 나지나 않았을까 걱정돼서

(3)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시키면 화라도 내지나 않을까 하여

(4) 자꾸 밖으로 나다니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

(5) 부모님께 알리면 걱정하시지 않을까 염려되어

(6) 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나 않을까 생각되어

6. 用下列词或惯用型造句。

· 막상

· 시퍼렇다

· 맨입

· 처박다

· 별일

· 마침내

· 그러고 보니

· 아득히

7. 选择恰当的词完成句子。

1

옛날 어느 나라에 딸 셋을 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이 (어질다, 현명하다)는 소문과 함께 딸들이 아름답다는 (소문, 소식)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온 세상에 (퍼졌다, 퍼졌다).

말이와 둘째도 (예사, 일반)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중에서도 셋째 딸은 이 세상의 빈곤한 언어로는 도무지 다 그려 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나다, 빼어나다)게 아름다웠다.

이 나라 왕의 막내딸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먼 나라 가까운 나라를 (불문하다, 막론하다)고 수많은 나라의 왕자들이 다 (모여, 몰려와) 막내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가기를 소원했다.

2

판도라는 제우스가 (선물하다, 선사하다)한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여간, 보통) 궁금하지 않았다. 판도라는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때) 제우스가 인간 세상에 보내려고 준비해 둔 질병, 가난, 불행 같은 (제앙, 재화)들이 (뛰어나오다, 빠져나오다)기 시작했다.

8. 把下面的短文翻译成汉语。

옛날에 천제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였다. 환웅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등 3,000명을 거느리고 인간의 360가지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았는데 환웅에게 사람으로 변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환웅은 그들에게 마늘 20쪽과 쑥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환웅의 말대로 하여 사람[웅녀(熊女)]이 되었다. 그러나 범은 견디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그와 혼인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아이를 배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했다. 웅녀가 임신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다. 단군은 자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단군은 그 후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